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9.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5	8	9	10	11	12
13	12	15	16	17	18	19
20	19	22	23	24	25	26
27	26	29	30			

원/달러 환율

1,342.60원 (-4.40원)

KOSPI

6,954.52 (-40.87, -0.58%)

KOSDAQ

811.88(-10.31, -1.25%)

국고채 10년 금리

4.401(+0.016%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9월 자산배분의 창(窓) 미국 경제, 견조함 뒤에 높아지는 비용 [이영주]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민간은 디레버리징, 공공은 리레버리징 [김상만]

실전 퀀트 '주도주 장세' 올 수 있나? [이경수]

기업분석

SK텔레콤 데이터센터 확장이 주주에게 호재인 이유 [김홍식]

디케이티 실적은 폴더블·전장, 다음 측은 휴머노이드 3사 [권태우]

글로벌리서치

Nexans Pure electrification player [유재선]

포니.ai 중국을 넘어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으로 [송예지]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S-Oil, 대한항공, 한화생명, 농심, 피에스케이홀딩스, RFHIC, 인텍플러스
아로마티카

하나증권

2026년 9월 9일 | Global Asset Research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9월 자산배분의 창(窓)

미국 경제, 견조함 뒤에 높아지는 비용

미국 경제는 높은 금리에도 주택가격과 소비가 버티고, AI 투자도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 다만 현재 흐름만으로 미국 경제를 판단하기보다,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담과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

① 주택: 매물이 늘어나는데 왜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가?

기존주택 보유자는 가격 인하보다 판매기간 늘리면서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고, 건설업체는 가격 인하 또는 금리 지원 비용을 마진에서 부담하며 재고 소화. 이 과정에서 신축 가격 조정이 먼저 발생 중이나, 주택 시장 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전체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제한. 따라서 단기 가격 하락에 따른 미 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

② 소비: 연체율이 높는데 왜 소비는 꺾이지 않는가?

부채 부담이 큰 계층과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이 다르기 때문. 연체율이 추가 상승하더라도 고용과 주택·금융자산 가격의 유지 여부가 향후 소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한되고 (금융자산과 상관관계 높은) AI 투자 사이클 지속된다면 소비 심리가 유지되면서 소비 주도층이 받는 충격은 당장 크지 않을 전망.

③ AI: 투자는 계속되는데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AI 투자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비용과 제약은 증가. 병목은 자금조달·데이터센터 건설 및 GPU 확보에서 전력비용 및 실제 전력 확보 여부·용수·환경·지역사회·인허가 문제로 확대. 가동 지연과 함께 이미 금융비용은 커질 수 있음. 이것이 AI 투자 사이클 훼손을 의미하진 않음. 하지만 실제 수요와 투기성 프로젝트를 가려내는 선별·검증 과정인 만큼, AI 투자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자연적 조정 현상으로 판단.

④ 장기금리: 그렇다면 가장 커진 금융 부담은 무엇인가?

정부와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음. 재정적자와 부채 차환을 위한 국채 발행에 AI·데이터센터 투자 목적 회사채 발행까지 늘면서 장기 듀레이션 공급이 확대. 이에 최근 장기금리 상승은 기대인플레이션보다 실질금리와 텀프리미엄 영향이 커지고 있음. 정부와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도 함께 상승 흐름.

⑤ 정책 대응과 금: 장기금리 부담에 대응한다면, 어떤 자산이 수혜를 받을까?

정부 이자비용뿐 아니라 기업과 주택의 금융비용까지 상승. 급격한 금리 상승을 완충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 바이백 등은 장기금리의 구조적 방향을 바꾸기보다 텀프리미엄과 상승 속도를 관리하는 수단. 또한 이 과정에서 달러·실질금리·정책 신뢰 등 다른 자산가격으로 영향이 파급될 소지. 특히 금이 상대적 수혜 자산 될 가능성에 주목.

자산배분 결론

견조한 경기와 AI 투자 사이클 지속을 감안해 위험자산 노출을 급격히 낮출 필요는 제한적 이라고 판단. 다만 금리 부담 지속될 수 있어 위험자산 내 실적 뒷받침 뚜렷한 섹터와 선거 전 정책 수혜 예상되는 자산·섹터 중심으로 선별 필요. 채권은 수급 부담에 따른 금리 변동성 이어질 수 있으나, 높아진 금리 레벨과 정책 추가 대응 가능성 감안해 중/장기적 관점 비중확대 검토. 동시에 금 등 대체자산 통한 분산투자도 확대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선임연구원 하형민 hyeongmin.ha@hanafn.com

2026년 9월 9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rediVille

민간은 디레버리징, 공공은 리레버리징

(+) + (-) = 0

지난주 자료에서 올해 회사채 발행실적이 체감적인 것보다는 작지 않았음을 다룬 바 있다. 7월 말까지 비금융사 회사채 순발행은 약 △9조원이었고 같은 기간 중 그만큼의 단기조달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메꿈으로써 전체 시장성조달규모는 “0”에 근접하였다. 최근 5년 평균 단기조달을 포함한 순발행(순조달)규모가 약 10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조원 정도 시장성조달이 예년에 비해 감소한 셈이다. 이는 전체 회사채 발행(잔액)규모 등에 견주어 볼 때 의미 있는 차이라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시장성조달을 포함한 전체 차입규모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투자적격등급 비금융회사채 발행기업 245개사(하이닉스 제외)의 '26년 반기 말 현재 합산 총차입금은 1,382조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약 97조원 증가하였다. 시장성차입증가가 거의 없었으므로 증가한 97조원의 대부분은 은행대출 중심의 일반대출을 통하여 조달된 셈이다. 단순히 금리메리트만 놓고 본다면 단기조달이 유리한 선택이었겠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권 대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그간 CrediVille을 포함한 시장 일각에서 우려했던 단기조달구조 심화에 대한 걱정은 일단 내려놓아도 되겠다는 판단이다.

한편, 차입증가분 자체만 놓고 보면 기업들의 전체적인 재무상황변화를 파악하기 힘들다. 전체자산, 부채 및 자본규모의 변동을 감안한 기업 재무편더멘털은 작년 말 대비 개선되었고 이 같은 흐름은 202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5년 1분기 말 대비 합산 부채비율은 153%에서 142%로 하락하였고 순차입의존도는 24%에서 22%로 하락하였다. 즉, 주요 회사채 발행기업들은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대상기업들의 총차입금에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상반기 말 23%에서 '26년 상반기 말 현재 14%로 하락하였다. 이른바 탈시장성조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반면, 최근 발표된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년 계획 대비 공공기관 합산 부채비율곡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채조달의 상당부분은 금융부채(공사채 등)를 통한 조달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권발행규모 또한 이전 대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모든 공공기관에서 부채 및 채권조달이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투자는 주거안정, 에너지에 집중되지만 부채증가는 주거안정 관련 부동산공기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그 결과 부동산공기업들의 사채발행 증가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큰 편이다. 다만, 생각만큼 공급 증가에 따른 구축효과 및 가격효과(신용스프레드 확대위험)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구축효과 관점에서 민간영역이 앞서 언급한 대로 디레버리징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도움을 이전만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 공공기관 재무계획 또한 수정될 여지도 있다. 가격효과 측면에서는 절대적 물량 증가는 부담이지만 예고된 물량 증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파급효과가 경감될 수밖에 없다. 그냥 1/N씩 따박따박 발행해준다면 시장은 알아서 흡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주도주 장세’ 올 수 있나?

실전 퀀트 | 2026.09.09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태석 taeseoklee@hanafn.com

과거 주도주 장세를 분석, 현재 시기와 상이한 모습

주도주 장세는 당분간 어렵다는 판단, ‘실적주 트레이딩’ 혹은 ‘반도체 및 지수(인덱스) 중장기 투자’

- 주도주 정의(방법론)는
 - 1단계: 60일 이격도 상위(과열) L-S가 2개월 이상 연속 플러스 → 91개월
 - 2단계: 롱, 숏 원인 구분. 숏 급락이 아닌 롱(과열종목) 플러스만 선별 → 주도주 시기 56개월
 - 3단계: 주도주 시기의 연속성 검증으로 2개월 이상 연속 시기 → 17회, 41개월(전체 시기 중 20% 확률)
 - ‘2010년~현재 기준으로 총 7개 국면, 국면당 평균 2.4개월 주도주 장세(최근 '24.4~5월 조방원 장세가 마지막)
- 과거 주도주 장세의 특징으로 살펴 본, 주도주 장세 선행 시그널은
 - 1) 글로벌センチ먼트 위험선호 관찰(t-2, t-1)
 - 2) 코스피 매출액 및 영업이익 컨센서스 둔화(t-2)
 - 3) 코스피 선행 PER 상승(t-2)
 - 4) 코스닥 코스피대비 상대강도 상승(t-1)
 - 5) 이익 상향 종목수 증가(t-1)
 - 6) t-1 외인 순매수와 개인 순매도 관찰, t0 외인 순매수 둔화와 개인 순매수, t+1 외인 순매도 전환과 개인 순매수 확대의 흐름 → 외인이 만든 온기 위에서 개인이 물량 받으며 주도주 장세 발생
 - 7) 거래증가(3M) 팩터는 t-1(주도주 장세 1달 전) -1.43 → t0 +3.02 → t+1 +3.77로 뚜렷한 전환 경로. 거래가 특정 종목군으로 좁혀지는 순간이 주도주 장세의 시작.
- 위의 시그널을 기반으로 현재는 주도주 장세 연출 가능성 매우 낮아
- 주도주 장세의 전제는 ‘코스피 전체 이익은 둔화되는데 일부 종목만 개선’되는 희소성인데, 현재는 전체가 개선되는 국면. 다만 이익모멘텀 자체는 다소 둔화 중.
- 또한センチ먼트(하나センチ먼트 Index) 역시 강한 위험선호라고 보기 어렵고, 선행 PER 5.6은 주도주 국면 평균(10.20)의 절반 수준으로 멀티플이 극단적으로 낮은 상황. 코스닥-코스피 상대강도 역시 낮아, 자금이 중소형주로 흘러갈 여지가 부족.
- 외인 수급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외인 수급이 둔화되면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역부족 상태(주도주 장세의 핵심은 ‘개인 수급’). MDD -40% 이후 개인들은 ‘본전 매도’에 집중하는 중.
- 또한 현재 거래대금 증가 팩터가 워킹하지 않는 상황도 주도주 장세와는 거리가 먼 시장성향.
- 한국 실적모멘텀 추가 약화, PER 상승, 개인 수급 회복, 코스닥 추세 강화 등의 환경이 선행되어야 ‘주도주 장세’ 도래
- 결국 특정 종목에 수급이 꾸준히 몰리는 주도주 장세가 아닌 ‘순환매’ 및 ‘트레이딩’ 장세 가능성 높아

2026년 09월 09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140,000원
현재주가(9.08) 92,4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954.52
52주 최고/최저(원)	125,200/52,100
시가총액(십억원)	19,846.6
시가총액비중(%)	0.35
발행주식수(천주)	214,790.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416.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31.7
외국인지분율(%)	34.28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11 인	30.60
국민연금공단	8.4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7,659.1	18,012.8
영업이익(십억원)	1,960.1	2,084.8
순이익(십억원)	1,339.3	1,411.7
EPS(원)	6,251	6,590
BPS(원)	65,498	68,771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7,940.6	17,099.2	17,658.9	18,217.8
영업이익	1,823.4	1,073.2	1,946.6	2,013.5
세전이익	1,761.8	722.3	1,710.5	1,726.5
순이익	1,250.2	408.4	1,285.2	1,273.0
EPS	5,810	1,901	5,983	5,927
증감율	16.27	(67.28)	214.73	(0.94)
PER	9.50	28.14	15.68	15.83
PBR	1.01	0.89	1.29	1.25
EV/EBITDA	3.73	4.41	4.70	4.13
ROE	10.83	3.33	9.04	8.05
BPS	54,898	60,299	72,918	75,215
DPS	3,540	1,660	3,600	3,8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SK텔레콤 (017670)**데이터센터 확장이 주주에게 호재인 이유****매수/TP 14만원/통신서비스업종 Top Pick 유지, 재료 많아 주가 오를 것**

SKT 투자 의견 매수, 12개월 목표가 14만원,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 Top Pick을 유지한다. 1) 공격적인 데이터센터 증설에도 무리한 CAPEX 증대에 나설 공산이 낮으며, 2) 상반기 실적을 감안하면 비과세 배당이 가능해지는 4분기엔 DPS 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래픽 연간 45% 증가 시 2032년 데이터센터 이익 기여도 1조원 예상

최근 SKT가 데이터센터 사업에 공격적이다. 직접 데이터센터 자회사인 SK하이퍼를 설립한 데 이어 유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인적분할하여 SK브로드밴드와 SK호라이즌으로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또 설립할 계획이다. SK호라이즌은 현재 진행 중인 울산 AIDC 100MW, 구로 AIDC 75MW 등 총 318MW를 운영하고, SK하이퍼는 국내외 사업을 확장해 1차적으로 5GW까지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인적 분할 후 SK호라이즌의 SKT 지분율은 51%로 예상되며 SK하이퍼는 출자 상황에 따라 SKT 지분을 하락이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SKT의 데이터센터 사업이 확장이 수년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데 향후 연간 45%씩 트래픽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32년 SKT 총 데이터센터 용량은 1.5GW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회계적으로 SKT의 데이터센터 총 매출액을 추정하기 어렵다. SK하이퍼의 경우엔 SPC 방식 운영이라 매출 반영이 아닌 수수료 또는 배당 지급 형태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고 투자자들과 SK호라이즌의 수익 분배 방식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총 SKT+SK브로드밴드 합산 데이터센터 매출액 추정은 가능한데 낙관적으로 보면 SKT 데이터센터 매출액 2032년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 가능할 듯하다. 현재 140MW 기준 5,000억원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음을 감안 시 단순 계산하면 매출액이 10배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업이익률이 현재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2032년 데이터센터 관련 영업이익 기여도는 1조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이익 배분 효과를 감안하면 SKT의 배당 재원은 대략 5,000억원 정도 높아질 것인데 현재 대비 67% 증가할 수 있어 주주 입장에서 보면 큰 호재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SK하이퍼와 SK호라이즌 이익이 배당으로 연결될 것, 주주에게 큰 호재

물론 5GW라는 SKT의 데이터센터 증량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CAPEX 부담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SK호라이즌은 이미 정해진 데이터센터 위주로 증설에 나설 것이며 SK하이퍼는 수익성을 검증하고 투자에 나설 수 밖에 없는 SPC 방식이다. 트래픽 상황을 감안하면 2032년 1.5GW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이다. 투자 부담을 줄이고 주주에게 배당을 늘려줄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센터 증설은 SKT 투자 매력도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2026년 09월 09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현재주가(9.8)

15,0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11.88
52주 최고/최저(원)	33,000/6,700
시가총액(십억원)	300.0
시가총액비중(%)	0.07
발행주식수(천주)	20,001.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66.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0
외국인지분율(%)	6.83
주요주주 지분율(%)	
비예치 외 2인	50.5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530	733
영업이익(십억원)	34	57
순이익(십억원)	36	54
EPS(원)	1,785	2,695
BPS(원)	11,973	14,602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364	280	403	426
영업이익	21	15	23	22
세전이익	25	9	36	29
순이익	20	4	27	23
EPS	1,193	248	1,380	1,159
증감율	81.6	(79.2)	456.5	(16.0)
PER	6.7	34.0	5.7	5.9
PBR	1.3	1.2	0.9	0.7
EV/EBITDA	4.5	7.2	4.2	4.0
ROE	19.5	3.3	14.8	11.4
BPS	6,123	7,094	9,087	10,140
DPS	0	0	0	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김진우 jinwookim1336@hanafn.com

디케이티 (290550)**실적은 폴더블·전장, 다음 축은 휴머노이드 3사****2Q26 Re. 및 3Q26 Pre.: 추정치 상회, 비수기 영업이익 +73% YoY 예상**

2Q26 연결 매출액은 1,480억원(+24.6% YoY), 영업이익은 100억원(+22.0% YoY, 영업이익률 6.8%)으로 당사 추정 영업이익 90억원을 상회했다. 폴더블 시리즈가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 가운데 판매 호조가 더해지며 스마트폰 부문이 외형 성장을 이끌었고, WPC·Auto OLED 등 전장 부문과 ESS BMS를 포함한 신사업이 성장에 가세했다. 3Q26 실적은 매출액 1,421억원(+34.3% YoY), 영업이익 83억원(+73.0% YoY, 영업이익률 5.9%)으로 추정된다. 플래그십 신제품 공백으로 외형은 전 분기 대비 낮아지겠으나, 고가 폴더블 추가 물량과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ESS BMS·Auto OLED 등 고부가 제품 기여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며 이익 증가율이 외형 증가율을 웃돌 전망이다.

로보틱스 양산 전환, 인지에서 구동으로 품목 확장

투자포인트는 로보틱스의 단계 전환이다. 북미 전기차 고객사향 휴머노이드 이머전시 디바이스 배터리 모듈은 주당 1,500~2,000대의 초기 공급으로 검증을 마쳤고, 8월 말 승인과 함께 양산 공급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2027년 상반기까지 물량 확대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 만큼, 로보틱스 매출이 분기 실적에 드러나는 구간에 진입했다. 후속 고객의 진행도 뚜렷하다. 북미 로보틱스 업체향으로는 지난 4월 초도 납품된 로봇용 충전 모듈에 이어 센서 PCB가 POC 단계에 들어갔고, 국내 대형 IT 업체향 휴머노이드용 배터리 BMS는 공급사 참여가 유력해 내년 CES 제품 공개 이후 양산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부분은 확장의 방식이다. 로봇 고객 전반에서 센서 PCB 등 인지 영역으로 먼저 진입한 뒤 관절용 FPCB 등 구동 영역으로 품목을 더하는 경로가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고객 수와 고객당 공급 품목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로보틱스의 기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전장이 실적을 뒷받침한다. WPC는 5개년(2026~2030년) 수주잔고 2.85조원으로 BH EVS 내 4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했고, Auto OLED는 3개년 수주잔고 3,300억원을 기반으로 2027년 단계적 레벨업이 예정되어 있다.

연간 영업이익 15% 상향, 다음 상향은 로보틱스에서

2026년 연간 추정치를 매출액 5,540억원(+30.1% YoY), 영업이익 354억원(+67.1% YoY)으로 각각 +4.8%/+14.9% 상향한다. 2Q 실적이 종전 추정을 웃돈 데다 ESS BMS·WPC 등 신사업 매출 반영 폭이 커진 점을 감안했다. 2027년 추정치는 매출액 7,445억원(+34.4% YoY), 영업이익 602억원(+70.4% YoY, 영업이익률 8.1%)으로 이익 개선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구간이다. 현 추정치에 로보틱스 매출은 아직 본격 반영되지 않았으며, 임대 방식을 활용한 미국 공장의 설비 발주 등 양산 대응 준비가 병행되고 있어 물량 확대 속도에 따라 추가 상향 여지가 있다. 로보틱스 변화의 방향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지금은 초기 국면으로 선제적 접근이 유효한 시점이다.

2026년 9월 9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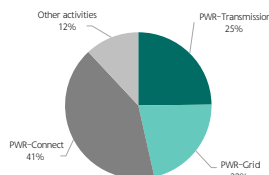
프랑스

TP(컨센서스) 171.14 EUR
CP(9.7) 138.60 EUR

Key Data

국가	FRANCE		
상장거래소	EN Paris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 장비		
홈페이지	www.nexans.com		
시가총액(십억EUR)	6.1		
시가총액(조원)	9.4		
52주최고/최저()	169/109.7		
주요주주 지분율(%)			
블랙록	5.45		
BPIFrance SA	5.21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0.7)	14.9	8.2
상대	4.0	11.0	0.8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EUR)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6,917	7,810	7,493	8,192
영업이익	340	376	528	660
순이익	279	352	304	393
EPS(USD)	6.2	7.8	7.1	9.0
EPS(YoY, %)	26.0	26.5	(9.2)	27.1
ROE(%)	15.9	18.5	15.5	16.5
PER(배)	27.8	25.6	19.5	15.3
PBR(배)	2.5	2.8	2.8	2.5
배당률(%)	2.5	2.3	2.2	2.5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yhyun@hanafn.com

Nexans(NEX.FP)

Pure electrification player

Electrification 업체로의 전환

Nexans는 PWR-Transmission, PWR-Grid, PWR-Connect 사업부를 영위하는 글로벌 전선 전문 기업이다. PWR-Transmission은 해저·육상 고압케이블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대형 송전 프로젝트 사업이며, PWR-Grid는 중·저압케이블을 중심으로 전력 배전망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한다. PWR-Connect는 저압 케이블과 액세서리를 주거·상업시설, 산업시설, 데이터센터 등 전력 최종 수요처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Nexans는 2021년부터 Non-Electrification 사업을 매각하며 사업 개편을 진행했다. 2026년 7월 자동차용 배선 및 전력 시스템 기업인 Autoelectric 매각을 완료하면서 Pure electrification player로의 전환을 마무리했다. 2026년 컨센서스 기준 PER 19.5배, PBR 2.8배다.

1H26 매출액 32.5억유로(YoY +5.0%), 조정 EBITDA 3.9억유로(YoY +4.3%)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32.5억 유로로 전년대비 5.0% 증가했다. 인수 효과 등을 제외한 기존 사업의 성장률은 1.5%를 기록했으며, Electrification 부문은 4.5% 성장한 반면 기타 사업은 15.6% 감소했다. 인수한 기업들의 매출 인식 효과로 매출액이 3.8% 증가했다. PWR-Connect 부문에서 스페인 Cables RCT의 5개월, 캐나다 Electro Cables의 6개월, 미국 Republic Wire의 1개월 매출이 인식되었다. 2026년 상반기 조정 EBITDA는 3.9억유로로 전년대비 4.3% 증가했으며, 전사 조정 EBITDA 마진은 11.9%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PWR-Transmission은 조정 EBITDA가 21% 증가하고 마진이 13.7%로 2.0%p 개선되며 수익성 개선을 주도했으며, PWR-Grid 역시 15.4%의 높은 마진을 유지했다. 반면 PWR-Connect는 고마진의 북유럽 부진과 저마진의 이탈리아의 비중 상승으로 11.8%의 마진을 기록했다.

공급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 확대 중

2026년 6월 케이블 부설선 Electra가 운항을 시작하며 해저케이블 포설 CAPA를 확대했다. 13,500톤의 케이블 적재능력을 갖추고 최대 4개 케이블 동시 포설이 가능한 선박으로, 대형 해저케이블 프로젝트의 동시 수행 및 일정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PWR-Transmission 사업에서 2028년까지 확보된 기존 수주잔고의 수행 및 매출 전환에 기여할 전망이다. 6월에는 미국 저압 전선 제조·유통업체 Republic Wire 인수를 완료하며 현지 사업 기반을 강화했다. Republic Wire는 미국 내 저압 케이블 생산시설과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설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생산능력을 약 30% 확대할 예정이다. Nexans는 Republic Wire의 현지 판매망을 활용해 저압케이블뿐 아니라 중압·그리드 제품까지 교차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9월 8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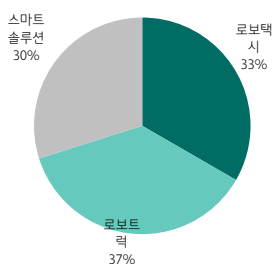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19.36 USD
CP(9.7) 7.35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나스닥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www.pony.ai
시가총액(십억USD)	3.2
시가총액(조원)	4.3
52주최고/최저(USD)	24.92/6.365
주요주주 지분율(%)	
Jun Peng	13.81
Toyota Motor	9.77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5.5) (41.1) (46.4)
상대	(5.6) (55.6) (65.5)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75	90	151	315
영업이익	(286)	(261)	(285)	(267)
순이익	(274)	(134)	(262)	(259)
EPS(USD)	(1.2)	(0.5)	(0.6)	(0.6)
EPS(YoY, %)	(13.2)	(59.1)	31.7	0.2
ROE(%)	(33.5)	(10.3)	(17.5)	(20.8)
PER(배)	-	-	-	-
PBR(배)	5.3	3.8	2.3	2.9
배당률(%)	0.0	0.0	0.0	0.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포니.ai(PONY.US)

중국을 넘어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으로

중국 1선도시 로보택시 상용 본격화

포니.ai는 2016년 바이두 자율주행 사업부 출신 엔지니어가 설립한 중국 자율주행 기업으로, 2024년 11월 나스닥에 상장한 데 이어 2025년 11월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포니.ai는 완성차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Toyota, BAIC, GAC 등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 차량에 자체 개발한 L4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6년 6월 기준 포니.ai의 글로벌 로보택시 운행 대수는 총 1,975대로, 대부분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포니.ai는 연말까지 로보택시 운행 대수를 3,50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을 포니.ai가 직접 보유하는 유료 운행 차량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로보택시 매출 비중 33%, 광저우/선전 UE 손익분기점 달성

2Q26 포니.ai의 로보택시 매출은 1,210만달러로 YoY +691% 급증했으며,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까지 확대됐다. 경영진은 2026년 연간 로보택시 매출이 2025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한 5,800만달러에 달하고, 매출 비중도 3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형 성장과 함께 로보택시 사업의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운행 대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제조원가 절감으로 차량당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광저우와 선전 지역 로보택시 사업은 각각 2025년 11월과 2026년 2월 차량 단위 경제성(UE) 기준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다. 현재 중국 시장 기준 포니.ai 로보택시의 차량 대당 원가는 약 27만위안으로 Baidu Apollo Go의 6세대 RT6 약 20만위안 대비 높은 수준이나, 포니.ai는 2027년 중반까지 이를 23만위안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Uber와 해외 진출 가속화, 중장기 성장 여력 유효

포니.ai 로보택시의 해외 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유럽·중동·아시아에서 Uber 등 파트너사와 협력해 빠르게 확대 중이다. 현재 포니.ai가 해외에서 협의 중인 로보택시 배치 물량은 4,000대 이상이며, 이 중 2,000대 이상은 Uber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에 배치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포니.ai가 차량을 직접 보유하기보다 현지 파트너와 차량 투자 및 운영을 분담하는 asset-light 방식의 joint deployment 모델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포니.ai는 올해 4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유럽 최초의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향후 이를 유럽 내 추가 4개 도시로 확대하고 중동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예고했다. 중국 내 상용화 확대와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를 감안하면 포니.ai의 중장기 성장 여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로보택시 운행 대수 확대에 따른 선행 투자 부담과 전사 적자 지속은 단기적인 주가 리레이팅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KS)	9/7	1,447,000	1,440,000	-0.48%	• 록빌 공장 매출 반영과 고환율 효과로 연간 매출 성장 가이드스 상단 달성 가능성 높아 • PolyPeptide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며 중장기 생산능력·사업 영역 확대
삼성SDI (006400.KS)	9/7	548,000	530,000	-3.28%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순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S-Oil (010950.KS)	9/7	157,300	159,400	1.34%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대한항공 (003490.KS)	9/7	30,200	30,100	-0.33%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한화생명 (088350.KS)	9/7	5,740	5,850	1.92%	• 중장기납 종신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신계약 수익성 크게 개선 •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따른 주주환원 불확실성 완화 기대
농심 (004370.KS)	9/7	430,000	417,000	-3.02%	• 2Q26 Review 매출액 9,561억원(YoY +10.2%), 영업이익 593억원(YoY +47.6%) 기록 • 북미 수익성 개선 및 글로벌 라면 업체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7	144,000	146,500	1.74%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9/7	48,300	47,400	-1.86%	• 방산 매출 확대와 RF머트리얼즈 실적 호조로 이익 성장세 지속 • 미국 Upper C-band 주파수 경매와 국내 5G SA-6G 투자 재개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
인텍플러스 (064290.KQ)	9/7	40,150	41,250	2.74%	• 북미 고객사향 반도체 검사장비 수주 확대와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 수혜 기대 • 고마진 반도체-기판 검사장비 비중 확대와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 기대
아로마티카 (0015N0.KQ)	9/7	10,120	10,410	2.87%	• 아마존 판매 급증과 북미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매출 고성장 지속 전망 • 자체 생산-R&D 기반의 높은 제품 경쟁력과 해외 매출 비중 확대가 중장기 성장 동력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33%	-3.70%p	+73.91%	+10.5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9/7	1,647,000	1,793,000	8.86%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S-Oil (010950.KS)	8/31	149,200	159,400	6.84%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65,000	-2.21%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NAVER (035420.KS)	8/18	228,000	214,500	-5.92%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027,000	-6.38%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30,000	15.47%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순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6,080	0.66%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370,000	19.96%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중산 (103140.KS)	8/3	71,200	78,400	10.11%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3,700	-5.80%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291,000	15.37%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순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6.84%	-2.52%p	+40.38%	-23.0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850	-8.4%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40,775	37.9%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 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6,765	-9.0%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 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19,500	-15.9%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19,610	-4.4%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34,560	-6.2%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8,390	-13.7%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290	-6.9%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5.32	13.4%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44	97.65	-0.8%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 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89.56	1.3%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94.59	1.6%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67.01	73.9%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PAVE (미국 인프라)	2026.08.24	56.39	55.16	-2.2%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78.99	-2.0%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63.81	4.9%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6	9.7	9.8	9.9	9.10	9.11	9.12
	- 일본 7월 선행지수 (117.9, 이전치 116.5) - 독일 7월 산업생산 (-1.1%, 이전치 0.2%)	- 한국 2분기 GDP P (0.6%, 이전치 0.6%) - 일본 2분기 GDP F (1.4%, 이전치 1.1%) - 미국 8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 (E 99.3, 이전치 99.8)	- 한국 8월 실업률 (E 2.8%, 이전치 2.8%) - 중국 8월 PPI (E 3.6%, 이전치 3.5%) - 중국 8월 CPI (E 0.8%, 이전치 0.5%)	- 유로존 9월 기준 금리 (E 2.65%, 이전치 2.4%) - 미국 8월 PPI (E 5.2%, 이전치 4.7%) - 미국 8월 기준주택매매 (E -1.7%, 이전치 -1.7%)	- 일본 8월 PPI (E 7.4%, 이전치 7.2%) - 미국 8월 CPI (E 3.4%, 이전치 3.4%) - 미국 8월 근원 CPI (E 2.4, 이전치 2.5%) -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E 51.0, 이전치 51.7)	
9.13	9.14	9.15	9.16	9.17	9.18	9.19
	- 일본 7월 설비가동률 (E --, 이전치 4.1%) - 일본 7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4.1%)	- 한국 8월 수출물가지수 (E --, 이전치 49.1%) - 한국 8월 수입물가지수 (E --, 이전치 18.7%) - 중국 8월 소매판매 (E 0.5%, 이전치 0.6%) - 중국 8월 광공업생산 (E 4.9%, 이전치 4.5%) - 유로존 9월 Zew 서베이 (E --, 이전치 31.4)	- 일본 7월 핵심기계주주 (E --, 이전치 9.7%) - 미국 8월 소매판매 (E 0.8%, 이전치 -0.6%) -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 이전치 35)	- 미국 9월 기준 금리 (E 3.75%, 이전치 3.75%) - 유로존 8월 CPI (E --, 이전치 3.3%) - 영국 9월 기준 금리 (E --, 이전치 3.75%) - 미국 8월 주택착공건수 (E --, 이전치 -12.4%) - 미국 8월 미결주택매매 (E --, 이전치 -2.3%)	- 한국 8월 PPI (E --, 이전치 7.7%) - 일본 9월 기준 금리 (E --, 이전치 1.0%) - 일본 8월 CPI (E --, 이전치 1.9%) - 미국 8월 광공업생산 (E 0.3%, 이전치 0.2%) - 미국 8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0.2%)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